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5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13: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6장(새 3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20번(새 37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보이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부어주소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을 심어주며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는 마귀의 계략과 미혹을 물리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 오직 우리의 몸을 통해 주님만 존귀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로마서 8:12-17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자녀가 받는 고난과 영광

- 봉 헌(offering) 489장(새 429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67장(새 341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 친교 후 12:30분에 믿음속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적용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장 : 송현진, 속원 :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욱, 허춘희)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헌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9:19-23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철저히 그 사람의 자리에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며 비로소 막혔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말씀묵상> 로마서 8:12-17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 사도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2-15절)
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것과 이를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6-19절)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과 고난은 패키지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따르지 않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부여받은 영광도 고난 뒤에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엔 영원 전부터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도리어 고난 없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광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는 팬데믹 이후에 다시 번영신학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타락시킨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미혹이 힘든 시기를 겪은 미국 교회 안에 뻗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알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종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불변의 영적인 원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고난을 회피하는 자입니까?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